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 후 자

2013년 2월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혜 숙

김 후 자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김후자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3년 2월

# 목 차

## 국문초록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	4
1) 결혼이민자 .....	4
2) 결혼이민자 현황 .....	5
3) 국제이주에 대한 조망 .....	11
2. 다문화재혼가족 .....	12
1) 다문화 재혼가족의 형성배경 .....	13
2) 다문화 재혼가족 욕구 .....	15
3) 다문화 재혼가족 결혼적응 .....	16
3. 선행연구 고찰 .....	17
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의 현황 .....	19

###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26
2. 자료수집 .....	26
3. 측정도구 .....	26
4. 분석방법 .....	27

####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	28
2. 다문화 재혼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 .....	30
1) 한국 생활 적응 .....	30
2) 의사 결정권 .....	34
3) 음식 문화 적응 .....	36
4) 공공지원 교육 프로그램 .....	40
5) 자녀 양육 .....	42
6) 결혼 동기 및 부부 적응 .....	45
7) 한국 국적에 대한 욕구 .....	49
8) 생활비 .....	51
9) 직업 .....	54

####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	56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58
참고문헌 .....	60
부록(설문지) .....	65
ABSTRACT .....	73

## 표 목 차

<표2-1> 국가별 국제결혼건수 .....	7
<표2-2> 결혼이민자수 추이 전망(2011-2020년) .....	8
<표2-3> 다문화 가족 인구 추이전망(2011-2020년) .....	8
<표2-4>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형별 현황 .....	10
<표2-5> 국제결혼이민자의 현황 .....	20
<표2-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연도별 현황 .....	20
<표2-7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세대별 현황 .....	21
<표2-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 .....	22
<표2-9>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현황 .....	24
<표3-1> 문항 구성 .....	27
<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 .....	29
<표4-2> 한국 생활 적응 .....	31
<표4-3> 의사 결정권 .....	35
<표4-4> 음식 문화 .....	38
<표4-5> 공공지원교육 프로그램 .....	41
<표4-6> 자녀 양육 .....	43

## 표 목 차

<표4-7> 결혼 동기 및 부부 적응 .....	46
<표4-7-1>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 적응도 .....	47
<표4-8> 한국국적에 대한 욕구 .....	50
<표4-9> 생활비 .....	52
<표4-10> 직업 .....	54

## 그 립 목 차

<그림2-1> 국제결혼 현황 .....	6
<그림2-2> 결혼 이민자 규모 .....	9



<국문초록>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재혼가족의 결혼적응에 관한연구

김 후 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적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SPSS WIN12.0 통계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주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적응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 혹은 외국인여성이(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한번이상 결혼했으나 전혼이 해소되고 난 뒤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여성결혼이민자, 혹은 한국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가족이다. 아내 111명, 남편 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고 이중16쌍은 직접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한국생활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받은 곳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문화센터, 자치센터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결정권으로 자녀교육, 재산관리, 생활비지출 모두 남편의 주요 결정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음식문화적응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음식을 만들면 남편들이 맛이 없다가 가장 높았고 남편과 시어머니 37%, 방문교육지도사 33%, TV 17%, 기타순으로 한국요리를 배운다.

넷째,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 및 자녀양육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장 많이 교육한다.

여섯째, 결혼동기 및 부부 적응 욕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 사람이 좋아서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가 가장 높았고 결혼전에 들은 이야기와 다름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일곱 번째, 한국국적 취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취득한 경우가 낮았는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많은 경우 이중국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시부모님의 도움여부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결혼하면 살림을 분가시키는 제주도가족의 분가제도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아홉 번째, 직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직업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을 갖는데 단순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문화 재혼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단기간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기관들이 함께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각 센터간의 중복서비스가 아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각 단체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의 방법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국제이주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 이주는 그 영향권에 있지 않는 나라를 찾을 수 없는 범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여성의 국제이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명에서 2010년 34,23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에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은 3.5%에서 10.5%로 3배 증가하였다(박기관, 2009; 김유경, 2011). 또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혼인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1%, 2005년 9.8%, 2010년 8.1%로 2000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다(문유경, 전기택, 2011). 아울러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0년 105,502명에 달하여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앞으로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본다(설동훈 외, 2010). 결혼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다문화가족 규모가 2008년 34만 명에서 2011년 55만 명으로 약 60%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규모는 2011년 약 21만 명에 도달하였고 이 가운데 한국인 남자의 재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족도 증가하였다. 설동훈 외(2010)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의 전체 구성원은 2020년에 현재의 약2배 수준인 98.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2011)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도 일반적인 결혼 유형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김영주, 2007).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시대, 전지구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교류와 인구이동의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의 요인과 함께 성비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빈약한

남성들의 결혼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상당수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집단적으로 결혼이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조애저, 2010). 이는 결혼자체가 목적인 중매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결혼 당사자들은 적합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은 결혼 전 두 사람의 애정이나, 결혼의 의미, 결혼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결혼이후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결혼을 전제로 이민 온 여성들로 한국의 결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상립, 2011).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낯선 나라에 와서 곧바로 그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민의 어려움과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중첩되는 측면으로 조사되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이들과 결혼하는 한국남성의 경우 고연령층, 농촌거주자, 사회경제적으로 낮은층, 재혼자 등의 비율이 높음에 따라 한국의 중간계층의 결혼보다 긴장감이 높으며, 이는 높은 이혼율로 나타난다(김승권 외, 2010). 최근의 한국 남성 국제결혼의 3분의1이 재혼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07).

여성결혼이민을 매매혼의 희생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제결혼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하려는 주체적 의지의 소유자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국 문화와 가치관 역시 한국생활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으로 보는 강점중심의 관점을 채택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이후 부부간 언어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문제, 배우자나 배우자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사회적 정보로 부터의 소외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결혼생활의 적응문제와 사회생활 유지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다문화 사회의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이 급등하는 추세에서 결국 이민자의 출신 국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한국사회의 문화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재혼가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현황 및 결혼적응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되리라 기대한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실태를 알아보고 재혼가족의 다양한 욕구 및 결혼에 대한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재혼가족의 적응을 돕고자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재혼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재혼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적응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다문화

김중세(2012)는 다문화(multicultural)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규정하였다.

### 2)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3호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국적법제2조~제4조), 귀화허가를 받은 자(국적법 제3조 및 제4조) 등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외국인만의 가족을 제외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된 가족’으로 지칭하였다.

### 3) 다문화 재혼가족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성 혹은 외국인 아내가(아내와 남편)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한번 이상 결혼했으나, 전혼이 해소되고 난 뒤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여성 결혼이민자 혹은 한국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 1)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migration)와 이주자(migrants)에 대한 개념과악이 필요하다.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에 의하면 이주는 국가 경계 간 혹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혹은 집단의 움직임을 말한다. 기간, 구성,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를 포괄하는 인구의 이동, 망명, 추방, 경제적 이민, 가족 재상봉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주자는 이러한 이주를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전반적으로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원인이나 자발성여부, 방법, 규칙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 년 이상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 수확시기의 농장 노동자들과 같은(1년 미만의) 단기거주 이동자 들도 이주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국제적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은 국가마다 혹은 지역마다 이주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이 다른데서 기인된다.

신지원(2011)은 이민과 이주에 대한 개념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국문 표기상 종종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민은 한 개인이자 집단이 정착을 목적으로 출신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행위로서 이입과 이출로 구분되며, 이주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정확한 개념을 외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결혼이민자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의하는 결혼이민자는 부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하였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이라 정의하고 있다(제한외국인 기본법 제3항). 결혼이민자로서 국적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책(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집단(국적이 없는)이 재한외국인

범주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자란 결혼을 전제로 입국한 자를 말하는 반면 법무부의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하면 다른 경우 즉 교육,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결혼한 사람, 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후 입국한 사람이 포함되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사람이 속해있는 가족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2항에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제2조제3호), 귀하허가를 받은 자(국적법제4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결혼이민자는 제한외국인과 귀화 허가를 받은 즉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 2) 결혼이민자 현황

최근 세계화 및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간의 발전 격차가 심화되어 해외 취업 및 국제결혼이 증가하였고, 한국의 결혼시장과 법, 제도 등 남아선호 결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만혼화 및 독신자의 비율 증가로 인해 배우자를 국제결혼시장에서 찾게 되었다. 특히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율리아나, 2010).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조사 결과(행정안전부, 2011)와 <그림 2-1>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국제결혼현황이 2003년 여성결혼이민자가 18,751명에서 2011년 22,265명으로 성장하였다. 국제결혼은 2000년에 전체 혼인건수에 3.5%였던 것이 2009년에는 10.8%까지 증가하였고, 이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75.5%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10).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양한 국내외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양진향 외, 2012).



출처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그림 2-1> 국제결혼 현황



<표 2-1>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제결혼 총건수	24,775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한국남자 + 외국여 자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53	25,142	26,274	22,265
중국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549
베트남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636
필리핀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2,072
일본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1,124
캄보디아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961
태국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354
미국	322	341	285	331	376	344	416	428	507
몽골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266
기타	1,224	1,158	1,183	1,219	1,334	1,502	1,597	1,538	1,796
한국여자 + 외국남 자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일본	2,250	31,183	3,423	3,412	3,349	2,743	2,422	2,293	1,709
중국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090	1,869
미국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1,632
캐나다	219	227	283	307	374	371	332	403	448
호주	109	132	101	137	158	164	159	178	216
영국	88	120	104	136	125	144	166	194	195
독일	94	109	85	126	98	115	110	135	114
파키스탄	130	100	219	150	134	117	104	102	126
기타	723	779	993	794	922	939	936	1,050	1,188

출처: 행정안전부(2011년)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 중 76.7%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2-1>.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은 중국(36.6%), 베트남(36.6%), 필리핀(7.3%) 순으로 상위 2개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수 추이전망<표2-2>을 보면 다문화가족은 2020년에 현 수준의 약 1.5

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결혼이민자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21 만 명에서 2020년에 3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성별로 보면 2011년 전체 결혼이민자 중 여성비중이 89.4%로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2> 결혼이민자 수 추이 전망(2011-2020년)

(단위:명, %)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전체결혼이민자수	205,352	267,775	350,862
남성결혼이민자수	21,767(10.6)	29,470(11.0)	39,356(11.2)
여성결혼이민자수	183,585(89.4)	238,300(89.0)	311,506(88.8)

- 1) 괄호 안은 해당연도 전체 결혼이민자수 대비 비중
- 2) 자료 설동훈 외(2010).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2011.1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의 전체구성원은 2020년에 현재의 2배 수준인 98.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총 인구대비 비중은 현재1.1%에서 2020년에는 1.9%로 늘어날 전망이다<표2-3>.

<표 2-3> 다문화가족인구 추이전망(2011-2020년)

(단위:명)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다문화가족인구수	550,974	723,300	985,820
결혼이민자	205,352	267,775	350,862
배우자	194,468	253,583	332,266
자녀	151,154	201,942	302,692

- 1) 배우자 규모 계산 시 결혼이민자의 5.3%가 이혼 혹은 사별한 것을 고려
- 2) 설동훈 외(2010),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2011.12.). 김승권 외(2010),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그림 2-2> 결혼 이민자 규모(2008-2011)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다문화정책 재인용, 2012

<그림2-2>에서 보듯이 2008년에 결혼이민자가 145,077명에서 2011년 205,352명으로 성장했다. 혼인귀화자는 2008년 22,525명에서 2011년 60,671명으로 성장했다. 결혼이민자 중 미귀화자는 2008년도 122,552명에서 2011년 144,681명이다. 또한 결혼이민자규모는 2008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다<그림2-2>. 결혼이민자중 국적 미취득자가 취득자의 약 2.3배나 많다.

<표 2-4>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 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	기타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합 계	10,406	7,633	3,719	1,625	926	1,663	631	2,773	533	227	2,013	
동북아	소계	4,961	3,542	1,403	518	869	752	457	1,419	378	199	842
	중국	2,750	2,197	926	263	822	186	76	553	132	68	353
	중국(한국계)	1,280	690	336	105	13	236	68	590	228	83	279
	대만	395	295	3	10	5	278	281	100	12	40	48
	일본	345	189	12	128	3	46	29	156	4	8	144
	몽골	191	171	127	12	26	6	3	20	2	0	18
동남아	소계	3,876	2,675	1,641	916	11	107	48	1,201	149	6	1,046
	베트남	1,947	1,254	609	569	8	68	28	693	89	2	602
	필리핀	747	350	52	273	2	23	11	397	49	3	345
	태국	143	127	112	8	0	7	3	16	2	0	14
	인도네시아	676	671	670	2	0	0	-	5	2	0	3
	캄보디아	286	202	142	58	0	2	3	84	7	1	76
	미얀마	13	13	13	0	0	0	-	0	0	0	0
	말레이시아	8	6	-0	2	0	4	3	2	0	0	2
기타	56	52	43	5	1	3	-	4	0	0	4	
남부시아	322	293	159	70	39	25	24	29	1	0	28	
중앙아시아	106	71	37	30	1	3	1	35	2	2	31	
미국	573	552	226	33	2	291	62	21	0	3	18	
러시아	60	53	13	12	2	26	9	7	1	1	5	
기타	508	447	240	46	2	159	30	61	2	16	43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2012>

<표2-4>에서와 같이 제주거주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7,633명(73,4%)이고, 한국국적을 지닌 외국인은 2,773명(26,6%)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5명당 1명이상이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지닌 외국인 주민 자녀가 2,013명이 포함되어져 실제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760명으로 전체외국인의 7.3%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자녀를 제외하여 한국국적취득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92.7%이지만, 2008년 한국국적 취득자가 336명(황석규, 2009)인 것에 비해 2012년에 760명으로 2배 상승하고 있다. 이주해온 동기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유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석규, 2012)

### 3) 국제 이주에 대한 조망

세계화의 핵심적 특징은 국가를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20만 명을 넘고 있으며 결혼의 8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이다. 이로 인한 혼혈아동의 수적 증가 역시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 변화를 가져온다.

Castles(2004)는 이주는 증가하고 이주민은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화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연쇄적 이주와 사회 네트워크로 인해 이주는 급속히 증가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주민의 규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았다. 최현미 외(2010, 다문화가족복지론, 재인용)

21세기에 나타나는 이주의 2가지 특징은 규모가 전 세계로 확대되며 이주민의 민족, 문화적 특성이다. 대부분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서구국가들은 이제 다문화사회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화정책에서 통합주의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 네덜란드, 영국은 일반적 다문화 정책을 선보이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사회정책교육이나 교육 등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아직 복지국가의 기반이 약한 나라들(스위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현미 외(2010)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황이 있으면서도 출생률이 높은 지역과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출생률이 낮은 지역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남서유럽은 출생률이 1.2명으로 낮아 인구 재생산에 필요한 수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심각한 노동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반면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높은 출생률로 인한 노동력의 성장은 있으나 노동자 유입의 장이 부족함으로 EU의 진입장벽(fortress Europe)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북으로 이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학적 접근에서 이주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살아남는 전략 중 하나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과업일 뿐만 아니라 송금수단이자 투자기회이기도 하다.

셋째 역사-제도적 접근에서 보면 자본과 노동시장의 권위에 의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1945년 이후 서유럽으로의 이주에 핵심요소로 작용하였다. 걸프석유 국가들과 계약 노동체계가 같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이주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가가 시장의 힘에 중점을 두고 멕시코와 캐러비언으로부터의 노동력을 유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넷째 사회학적 접근에서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중요시한다. 문화자본은 다른 사회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제공하는 기회, 일자리 정보 등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이주에 필요한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연결이다.

최근의 연구는 예전의 '이주연결고리(chain migration)' 대신 '네트워크'와 모국의 지역사회와 이주국가의 지역 사회 간 연계들이 생성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기술과 교통수단기술이 향상됨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더욱 탄탄해지며 국제이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 2. 다문화 재혼가족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람(내국인)끼리의 결혼을 당연시 하였으나 최근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국내결혼의 기회상실로 인하여 그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결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학력, 능력 있는 남성들도 외국여성과 결혼을 통한 배우자 선택, 현지 사업구상 및 자녀의 외국어 습득기회 제공 등 국제결혼을 선호하며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형태는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이 높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초혼이 감소하고 재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다문화 재혼가족은 일반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외에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등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가족 스트레스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양육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재혼한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을 제고하고 건강하게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족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부터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 1) 다문화 재혼가족 형성배경

국제결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그 기원을 알 수 없으나 수세기 동안 수많은 외침을 받아온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전쟁과 침략 속에서 전쟁포로, 침략 지역민의 통치와 통합의 일환으로 정략적 차원에서 귀화 및 국제결혼을 장려하였다고 본다. 과거의 귀화인(국제결혼)들이 외모 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우리사회에 쉽게 동화되었던 것이다.

고려 충렬왕의 원나라 노국 공주와의 결혼(아들은 충선왕)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프렌체스카 여사의 결혼 등은 대표적인 국제결혼의 사례이다. 초기에는 무역상을 통한 개인 소개로 시작하여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가 등장하기까지 국제결혼 대상국의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전남표, 2008).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한국인에 있어 국제결혼 대상자인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한민족의 핏줄인 중국의 조선족,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우선 배우자로서 적합했던 것이다. 그 후 한민족의 핏줄은 아니지만 외모와 정서가 비슷하다고 생각된 중국 한족, 몽골인에 이어 한국과 인접한 러시아 연방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특히 베트남인의 경우 외모와 정서가 한국인과 비슷하고 배우자(여성)로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캄보디아의 경우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대안으로 선택된 나라라 볼 수 있다.

결국 한국남성은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정서, 지리적 근접국인 중앙아시아로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이 한국인(국제결혼 대상자)의 정서와 비슷한 동남아시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로 상대적으로 결혼여건이 열악하게 된 한국남성들에 있어 결혼적령기를 넘긴 소위 “노총각”이 양산되어 그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사회의 여성이 선호하지 않는 집단의 남성일수록 외국여성과의 결혼비율이 늘어나게 되며, 그 대표적 집단이 농촌총각, 경제수준이 낮은 도시근로자, 그리고 재혼 남성들이다. 물론 자발적인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들도 있으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전남표, 2008).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제적 안정과 신분상승의 이유로 외국남성들과 결혼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외국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경제적 안정 및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친정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꿈꾸며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남성들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에게 있어 두드러지는 모습 중 하나가 혼인 연령차이다. 2007년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 부부의 혼인 연령차는 11.3세로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인 2.4세보다 8.9세나 많다(2007, 통계청). 다문화인구 동태 (2011)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연령차는 남성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5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성은 결혼 연령이 34세 이하 27.5%, 40~44세 까지 22.7%, 45세 이상 27.1%로 나타났다.

다문화재혼 비율(한국인 남자 재혼 외국인 아내)이 35%로 한국인끼리 재혼한 비율(15.7%)보다 높았다. 다문화 혼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14.5%), 전북(11.4%), 제주(11.2%) 순이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 2011). 즉 연령은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17~30년 많은 경우가 22.9%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인 가정에서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경우는 3.2%이다.

조사에 따르면 많게는 30살 이상의 나이 차이로 딸보다 어린여성을 아내로 맞는 가정들이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제일 큰 자랑거리는 남편과의 나이 차이로, 나이차이가 적을수록 자랑거리가 된다.

한편 외국 여성과 혼인한 한국 남성의 초-재혼 구성비는 2000년 각기 75.8%와 24.2%로 크게 차이 나던 것이 2004년 10% 차이로까지 근접했다가 2007년 들어



63.2%와 36.8%로 증가했다.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 중 76.7%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1%, 2005년 9.8%로 2000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다. 2011년 전체 결혼건수가 32만 6104건 중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은 8쌍이며 이중 1쌍이 다문화재혼가정의 결혼이다.

## 2) 다문화 재혼가족의 욕구

다문화 재혼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부모의 재혼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외부인 사람들과 부모관계를 시작해야 하므로 가족경계나 역할상의 갈등을 느낀다. 또한 친부모가 새 배우자와 가까워져서 자신과의 할애시간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이윤애, 2004).

특히 다문화 재혼가정은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재혼가정의 문제를 모두 경험한다. 한국가족은 친족관계를 중시하는 혈연중심주의로 재혼가족에서 배우자의 계자녀와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국의 부계중심주의에 의한 가부장적 가족은 재혼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또한 성별간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계부보다는 계모에게 더 많은 의무와 기대를 부과하여 역할수행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는 사회적 기대 면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계모는 계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에 노출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2012)에 따르면 국제결혼 입국 전 주요 상대국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에서 한국 입국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안정적 결혼생활을 지원하는 현지사전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몽골에서 처음 시작된 현지사전교육은 2012년 현재 3개국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조기적응을 위해서 더 많은 나라들도 한국 입국 전에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아 결혼이민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란다. 2011년 현지사전 교육 이 수율: 결혼건수(9,974건) 대비 교육이 수율 80.4% (출처: 통계청)

이들의 욕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

터교육은 자녀양육과 거리상의 이유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컴퓨터는 본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한국사회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편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아내 국가의 문화에 대한 교육, 아내 국가의 언어, 부부갈등해소 및 대화법, 자녀양육 및 지도방법 등을 원했다(김이선, 2006).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비 충당, 자기발전, 본국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다. 설동훈(2006)의 연구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85%,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73%로 취업에 대한 욕구는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영주(2006)가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녀의 한국어 교육, 자녀의 학습 및 놀이지도 등을 선호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들 또한 되도록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지원에 대한 욕구로 언어나 문화 차이로 인해 많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하다. 즉 생활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모선화 외, 2008).

### 3) 다문화 재혼가족 결혼적응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족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과정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겪으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을 향상시키고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문화 재혼가족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적응을 위해 겪어야 하는 것은 많다. 언어소통이 어렵고 남편과의 연령차와 전혀 자녀의 양육문제, 문화차이 등 결혼적응이 쉽지 않다, 남편의 신경질적인 성격과 부정적 행동은 부부갈등과 상호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경미, 김영희, 2009; 오선주, 2002; 현은민, 1995). 이를 위해 다문화 재혼가족들의 자조모임을 만들고 가능하다면

각 나라별로 부부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남편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은 새로운 문화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Berry(2005)는 문화적응 유형에 대해 “문화적응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 비주류 집단인 이주자의 문화적응전략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주자가 그들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자신의 고유문화를 버리고 주류사회로 흡수되기를 원하는 것을 “동화”라고 하였다. 반대로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고 동시에 다른 문화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분리”라고 정의하였다. 다른 문화집단과 매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고유문화도 유지하면서 양쪽에 관심을 두면 “통합”이라 하였다. 끝으로 고유문화 유지에 관심과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동시에 다른 문화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관심이 없을 때 “주변화”라고 정의했다. (구차순, 2007 재인용)

### 3. 선행연구 고찰

결혼은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험되는 불행감, 만족, 행복, 기쁨 등의 주관적인 느낌이며, 한 개인의 결혼생활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와 불만족하고 있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권정혜, 채규만, 2000; 정승혜, 1988; 정현숙, 2001). 즉, 그동안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성분리화와 성불평등 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 경험이 결혼불만족, 갈등, 결혼부적응 등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더 많이 경험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이영숙, 박경란, 2009).

다문화가족 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정폭력이나,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더 많이 직면한 관계로 여성중심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도희, 2008; 김영란, 2006; 양정화, 2005; 윤형숙, 2005; 장은정, 2007; 최금혜, 2006).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이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 등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관심이 제기되면서 결혼생활의 중요한 당사자인 남편의 관점에서 결혼생활을 접근한 연구들이 최근보고 되고 있다(엄명용, 2010),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에 대한 Han(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일방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 이로 인한 실수나 차이를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높아 가족 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주여성들이 한국 가족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간다. 식구들은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양진향 외, 2012 재인용)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와 남편에 대해 기대가 컸던 만큼 좌절감도 컸으며, 한국가족들도 이주여성에 대해 사회전반에 팽배해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을 받아 서로간의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해 소통의 어려움이 컸다. 이는 이주여성의 생활체험의 본질적 주제 “다양한 관계 속에서 깨어진 한국이민의 꿈”으로 집약된 Cui(2005)의 보고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주여성의 적응은 가족 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양진향 외, 2012 재인용)

이주여성들이 가족 적응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은 다양한데 이중 상대방과 차이 조율하기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Rosenberg와 동료들(2006)은 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이민사회에 먼저 와서 적응되어 이중문화를 가지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주여성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주여성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혹은 여성자신의 가치로부터 기대되는 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여성에게 매우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데 재혼모의 경우 더욱 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재혼모와 관련된 연구와 재혼 가족에 대한 연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계자녀와의 관계이다. 전처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재혼모의 결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에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자녀의 존재는 생모의 재혼생활 안정감과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춘희, 1996).

특히 재혼모의 결혼생활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관계는 부부관계이다. 그러나 재혼

부부의 관계는 초혼부부에 비해 상호간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고 문제해결기술도 미숙하고, 의견 일치도 낮아 갈등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춘애 외, 1998 재인용).

재혼가족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모가 다른 형제, 부의 다른 형제들의 존재는 재혼가족의 가족생활의 질뿐만 아니라 재혼모의 역할기능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친형제들의 관계는 출생 순위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비해 이복형제들의 경우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 형제들 간의 갈등과 마찰의 여지가 크고 이것이 흔히 재혼가족의 안전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문제도 재혼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인데 특히 가정의 경제권은 재혼 부부의 관계를 상징하는 척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Fishman(1983)은 가정경제의 관리형태가 부부 상호간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즉 재혼모의 입장에서는 경제권의 유무가 아내나 모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혼모의 역할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적응 경험, 다문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몇 개의 변수로 파악하거나 일부 변수 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적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질적 연구들은 생활체험(Cui, 2005), 가족갈등(Han, 2006), 문화적응(Kang, 2007; Kim & Park, 2010)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현황과 한국사회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갈등을 겪는 것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보다는 가족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양진향 외, 2012 재인용).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수용해가는 것이 한국가족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 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의 현황

제주지역 국제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표2-5>, 2008년 1,201명에서 2012년 2,15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순이며,

이들 4개 국가의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1,838명으로 전체결혼이민자수의 85.2%를 차지한다.

<표 2-5> 국제결혼이민자의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태국	기타
2008	1,201	606	207	113	75	19	9	8	6	158
2009	1,444	686	360	183	72	17	6	10	10	100
2010	1,609	718	423	228	69	17	9	11	13	12
2011	2,007	771	554	291	117	32	12	13	12	195
2012	2,158	728	656	322	132	33	13	14	10	25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2012년1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가족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2-6>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결혼건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던 국제결혼비율이 2010년에는 증가폭이 2009년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전체 결혼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서귀포시의 다문화가족의 2.23배로 조사되었다. 제주시의 다문화 가족 중 남자는 서귀포시의 5.6배나 많고, 여자는 약 2배 정도 많다. 이는 취업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			비고 (증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7	<b>948</b>	84	864	<b>603</b>	62	541	<b>345</b>	22	323	
2008	<b>1201</b>	95	1,106	<b>842</b>	76	766	<b>359</b>	19	340	26.7%
2009	<b>1,444</b>	94	1,350	<b>1,006</b>	79	927	<b>438</b>	15	423	20.2%
2010	<b>1,614</b>	95	1,519	<b>1,099</b>	77	1,022	<b>515</b>	18	497	11.8%
2011	<b>2,007</b>	147	1,860	<b>1,379</b>	121	1,258	<b>628</b>	26	602	24.3%
2012	<b>2,158</b>	167	1,991	<b>1,490</b>	142	1,348	<b>668</b>	25	643	7.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2012.

다음 <표 2-7>은 다문화가족 세대별 현황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372명 중 중국(한국계 포함)출신이 5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이 372명, 필리핀 163명, 일본 91명, 캄보디아 44명, 남부아시아 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나라들은 적은 수치를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중국(한국계포함) 2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69명, 필리핀 127명, 일본 24명, 캄보디아 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세대별 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 시아	동남 아시아	미국	러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기타
총계	1,998	499	284	33	115	13	541	290	12	1	61	1	5	30	8	37	24	44
제주시	1,372	331	213	27	91	5	372	163	5	1	44	1	4	23	7	34	18	33
서귀포시	626	168	71	6	24	8	169	127	7	-	17	-	1	7	1	3	6	11

출처: 제주 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2011)

다음 <표 2-8>는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현황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적별로는 동북아 지역으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72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132명, 대만 22명, 몽골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중국(한국계포함) 212명, 일본 26명, 몽골 8명, 대만 3명으로 파악되었다.

동남아지역은 제주시의 경우 베트남 435명, 필리핀 186명, 캄보디아 45명, 태국 5명, 인도네시아3명, 말레이시아는 2명, 기타 3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는 베트남 223명, 필리핀 136명, 캄보디아 20명, 태국 5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되었

다. 남부아시아는 제주시 64명, 서귀포시 7명으로 조사되었고, 중앙아시아는 제주시 23명, 서귀포시 9명이었고, 미국은 제주시 27명, 서귀포시 6명이며, 러시아는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명, 기타는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0명으로 나타났다.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2,158	1,490	668
동 북 아	소계	896	647	249
	중국	395	292	103
	중국(한국계)	333	224	109
	대만	22	19	3
	일본	132	106	26
	몽골	14	6	8
동 남 아	소계	1,065	679	386
	베 트 남	658	435	223
	필리핀	322	186	136
	태국	10	5	5
	인도네시아	3	3	-
	캄 보 디 아	65	45	20
	말레이시아	2	2	-
	기 타	5	3	2
남부아시아		71	64	7
중앙아시아		32	23	9
미국		33	27	6
러시아		13	12	1
기 타		48	38	1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2012)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현황이다. <표 2-9>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현황은 제주시지역 26개와 서귀포 지역 17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의 2배 이상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시지역에서는 애월읍에 176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노형 158명, 연동 117명, 조천읍 115명, 이도2동 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자도 18명, 우도 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에 105명, 남원읍 75명, 성산읍 62명, 동홍동 60명, 안덕면 57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별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명)

구 분	다문화가족			구 분	다문화가족		
	계	혼인 화자	귀 이 민 자		계	혼인 화자	귀 이 민 자
<b>총 계</b>	<b>2,158</b>	<b>533</b>	<b>1,625</b>				
제주시	1,490	363	1,127	서귀포시	668	170	498
한림읍	93	28	65	대정읍	105	11	94
애월읍	176	52	124	남원읍	75	17	58
구좌읍	87	7	80	성산읍	62	8	54
조천읍	115	34	81	안덕면	57	8	49
한경면	48	11	37	표선면	60	25	35
추자면	18	-	18	송산동	21	7	14
우도면	5	2	3	정방동	11	-	11
일도1동	19	7	12	중앙동	18	11	7
일도2동	67	3	64	천지동	11	5	6
이도1동	20	5	15	효돈동	11	1	10
이도2동	111	28	83	영천동	28	11	17
삼도1동	31	7	24	동홍동	60	20	40
삼도2동	25	6	19	서홍동	22	7	15
용담1동	17	2	15	대륜동	44	15	29
용담2동	55	15	40	대천동	24	10	14
건입동	45	12	33	중문동	40	8	32
화북동	76	26	50	예래동	19	6	13
삼양동	56	9	47				
봉개동	15	3	12				
아라동	41	4	37				
오라동	23	6	17				
연 동	117	41	76				
노형동	158	43	115				
외도동	35	3	32				
이호동	29	7	22				
도두동	8	2	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20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세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며 제주시지역이 서귀포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재혼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 111명이다. 이들은 한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전혼이 해소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룰 때 배우자로 맞이한 가족이다.

####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법으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도움으로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15일 예비조사를 시작하였다. 6월10일 본조사가 실시되어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후 어휘와 설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제주이주민센터, 하귀 두리안결혼정보회사, 서귀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도움으로 본 조사를 마쳤다. 설문지는 총200부중에서 120부가 회수되었고 부실기재를 제외한 111부가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다문화재혼가족이므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개인적인 사생활 노출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성향이 강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재혼가족인줄 알고 있지만 도내의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남성이 재혼인 것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설문지 조사를 토대로 111 가족이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다문화 재혼가족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16쌍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을 실시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3. 측정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는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정기선 외, 2007)와 사용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하였고, 대구지역 국제이주여성

들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우숙이, 2010)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문항들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을 만들었다.

결혼적응 검사지는 Freeston, Mark H.(1997)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최성애의 로크-월러스의 결혼적응검사지(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를 사용하였다.

<표 3-1> 문항구성

구분	내용	문항
한국 생활 적응	도움 받은 곳, 어려운 점, 문화차이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하고 싶은 일, 부당 대우경험	6
의사 결정권	자녀 교육, 재산 관리, 생활비 지출	3
음식 문화	음식으로 인한 갈등, 출신국 음식, 한국 요리시 힘든 점, 한국 음식 배운 곳	4
공공교육 프로그램	선호하는 프로그램, 공공지원요구프로그램, 학습 장소, 교육중 좋았던 교육	4
자녀양육	자녀양육에서 걱정되는 부분, 자녀한국어 구사 걱정 여부, 출산한 자녀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영유아 건강검진	4
결혼동기 및 부부 적응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결혼 전 들은 이야기와 다름 (갈등 경험 내용), 부부싸움(이유, 횟수, 폭력경험)	3
한국 국적에 대한 욕구	국적취득여부, 국적을 취득 하지 않는 이유, 이중국적여부	3
생활비	시부모의 도움 여부, 친정부모 송금 여부, 송금지원자, 현재 생활수준	4
직업	직업여부, 만족도, 수입의용도	3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결과분석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주도 다문화 재혼 가족의 욕구 및 결혼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

제주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나이는 26~35세가 59.5%로 가장 많고 25세 이하는 23.4%로, 36~45세는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나이는 41~45세가 38.7%로 가장 높았고 46~50세 26.1%, 51~55세 18%, 56세 이상 11.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은 일반 재혼가족 재혼연령은 2011년 남성 45.6세, 여성 41.3세로 전국평균보다 낮았다(통계청, 2011). 제주도 다문화재혼가족은 남성 46세 이상 55.8% 여성 35세 이하가 82.9%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재혼가족에 비해 다문화 재혼가족이 남성 연령이 높고 여성 연령이 낮다.

결혼경로는 78.4%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재혼을 하였으며, 친구나 친척 14.4%, 연애 3.6%, 종교단체 3.6%순으로 나타났다.

재혼하여 출산한 자녀는 1명이 55%, 2명이상 23.4%, 임신 중이거나 낳을 계획 이 2.7%순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경우도 16.2%가 되었다. 이는 전처 자녀가 있거나 남편과의 연령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다중응답을 실시하고, 주로 남편, 자녀, 전처자녀, 시댁식구, 친정식구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다문화 재혼가족은 출신국이 베트남 55%, 필리핀17.1%, 중국 10.8%, 네팔 7.2%, 일본 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재혼여부에 대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81.8%가 알고 결혼했고, 18.2%는 모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처자녀가 없는 경우도 22.9%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초혼에 다문화가족을 이루었으나 결혼적응에 실패하고 재혼으로 다시 여성결혼이민자를 맞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보통이다 60.4%, 찬성한다 22.5%, 반대한다 12.6%, 적극 반대한다 4.5% 로 조사되었다. 연구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의 삶이 힘든 가족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본인연령	25세 이하	26	23.4	출신국	중국	12	10.8	
	26-35	66	59.5		일본	1	.9	
	36-45	16	14.4		베트남	61	55.0	
	46세 이상	3	2.7		필리핀	19	17.1	
배우자 연령	40세 이하	6	5.4		네팔	8	7.2	
	41-45세	43	38.7		기타	10	9.0	
	46-50세	29	26.1	재혼 여부	알았다	90	81.8	
	51-55세	20	18.0		몰랐다	20	18.2	
	56세 이상	13	11.7	동거 가족 (다중 응답)	남편	94	40	
결혼 경로	친구, 친척소개	16	14.4		전처자녀	37	16	
	결혼중개업체	87	78.4		친정식구	8	3	
	종교단체	4	3.6		자녀	67	29	
	연애	4	3.6		시댁식구	28	11	
전처 자녀	1명	44	40.4		출산 자녀	1명	61	55.0
	2명	30	27.5			2명이상	26	23.4
	3명이상	10	9.2			안 낳겠다.	18	16.2
	없다	25	22.9	임신 중		3	2.7	
가족, 친척,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찬성	25	22.5	날을 계획이다		3	2.7	
	반대	14	12.6					
	적극 반대	5	4.5					
	보통	67	60.4					
합 계		111	100.0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 2. 다문화 재혼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적응

### 1) 한국 생활 적응

다문화 재혼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은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5.5%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1.8%, 자조모임 9.1%, 주민자치센터 9%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적응 생활의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 48.6%, 생활방식의 차이 27.5%, 가족관계 18.3%, 외국인차별 및 편견 9%, 기타 4.6%로 나타났다. 문화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자녀양육 35.2%, 음식 23.1%, 가사분담 18.7%, 기타 12.1%, 느끼지 않는다 11.0%로 나타났다. 한국생활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5%, 보통 34.2%, 불만 14.4%, 매우만족 8.1%, 매우불만 2.7%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처의 자녀는 1명이 40.4%, 2명 27.5%, 3명이상 9.2%, 없다 22.9%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장하고 싶은 일로 자국의 통역원 및 가이드 19.1%, 미용 및 피부 관리 15.5%, 자영업 11.8%, 자국민상담사 및 다문화강사 5.5% 순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물음에 조금 느낀다 45.5%, 없다 28.2%, 있다 20.9%, 많이 느낀다 3.6%, 기타 1.8%로 조사되었다.



<표 4-2> 한국 생활 적응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도움 받은 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3	75.5	한국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9	8.1
	주민자치센터	1	.9		만족	45	40.5
	문화센터	3	2.7		보통	38	34.2
	자조모임	10	9.1		불만	16	14.4
	기타	13	11.8		매우 불만	3	2.7
어려운 점	가족관계	20	18.3	하고 싶은 일	자국민 상담사	6	5.5
	의사소통	53	48.6		통역원, 가이드	21	19.1
	생활방식의 차이	30	27.5		다문화 강사	6	5.5
	외국인 차별, 편견	1	.9		미용, 피부관리	17	15.5
	기타	5	4.6		자영업	13	11.8
문화 차이 인식	가사 분담	17	18.7	부당 대우 경험	없다	31	28.2
	음식	21	23.1		있다	23	20.9
	자녀 양육	32	35.2		조금 느낀다.	50	45.5
	느끼지 않음	10	11.0		많이 느낀다.	4	3.3
	기타	11	12.1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남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그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남편:** 아내가 전처자녀하고 문화차이와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전처가 시도 때도 없이 학교로 찾아와서 아이를 만나고 방과 후 수업도 안하고 전화 연락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다.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

미리 연락하고 만나도록 했는데 연락도 없고 연락처도 바꾸고 마음대로 아이를 만나 혹시 지금의 아내가 오해할까봐 속상하다. 아이문제만 없으면 아무 문제없고 행복하다. 단지 아내는 본국의 조카들과 전처자녀를 비교하면서 조카들은 이런데 왜 \*\*는 안 그러냐는 식이다. 전처자녀와 갈등을 겪고 아이와 싸우고 나서 일하고 있는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나는 그때부터는 일도 안 되고, 원래 술 담배를 많이 안했는데 요즘은 자주하는 편이다. 주변에서 외국 젊은 여자 만나서 좋겠다고 쉽게 한 마디씩 할 때는 내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다.

**사례1-2) 아내:**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 2학년인데 현관에서 오줌을 누는데도 야단도 안치고, 어려서 그렇다고 말한다. 문화차이라고 남편은 말해요. 출신국 조카하고 \*\*하고 나이 같아요. \*\*가 화가 나면, 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요. 말을 빨리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답답해요. 천천히 얘기하면 알아요. \*\*에게 \*\*도 가르치고 싶어요. \*\*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사례3) 아내:** \*\*아, 밖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먹어 방에 들어와서 먹지마. 아이들은 내말을 안 듣는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괜찮아”한다. 아이들을 혼내면 시아버지가 뭐라 하신다. 임신 중이라 힘들고 방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이불에 냄새가 배고 난 그런 냄새가 싫고 내 방에서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방에서 TV 보고 컴퓨터 하면서 안 나가고 나가라하면 나가서 방전기 코드를 뽑아 버린다. 너무 속상해요.

**사례4) 아내:** 잠시 차를 세우고 일을 보던 중 차를 빼라고 소리 질렀다. 보니까 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얼굴 확인 후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욕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거짓말(거짓증인)까지 세워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사례5) 아내:** 남편과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었다. 남편과 사업상 친구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친구 부인이 술이 취해서 추태를 부려 혼자 집으로 가려는데 야 너\*\*년이 건방지게 왜 먼저 가냐고 시비를 걸어서 대판 싸우고 집에 왔다. 남편은 그쪽 부인 편을 들어주고 \*\*년이 무식하게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지게 싸웠죠,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넌 한국사람, 아빠도 한국사람, 난 옆에 있다 엄마는 무식한 \*\*년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다문화 재혼가족의 전처자녀들은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반항기에 들어서면서 새엄마가 여성결혼이민자이고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며,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통의 단절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황으로 치닫거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무시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가족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며 자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진다. 자녀가 학령기 이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젊은 새엄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불쌍히 생각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새엄마와의 친밀감 형성에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느끼고 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차별과 편견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의 태도나 행동을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 차이로 인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서로 간의 갈등이 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재혼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사회통념상 계모의 이미지로 각인된 상태에서 바라보므로 더 많은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인다. 남편이나 가족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의 문화, 및 언어에 대해 전혀 관심과 배려가 없고 일방적인 한국어 습득과 생활방식을 강요해서 많은 저항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 낮아 다문화가족들이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2세들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혈연을 강조하면서 타 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이 강하고 이런 사회적 편견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차별로 나타난다. 배타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한국 남성 및 그 가족 친지의 유교적 사상과 가부장적 사고로 인하여 외국 여성을 억압 내지 통제하려는 속성을 나타낸다.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여성이 한국의 가족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상에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가족 간의 갈등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의사 결정권

다문화 재혼가족의 자녀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의사결정권으로 자녀교육에 있어서 남편의 결정권 48.6%, 부부 29.5%, 시부모 11.4%, 아내 10.5% 로 나타났다. 재산관리는 남편이 77.1%, 시부모11.9%, 부부가 10.1%, 아내는 9% 로 나타났다. 생활비지출은 남편이 69.7%, 부부 16.5%, 시부모 8.3%, 아내 5.5% 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편에게 의사결정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의사 결정권

구분		빈도	%
자녀 교육	남편	51	48.6
	부부	31	29.5
	시부모	12	11.4
	아내	11	10.5
재산 관리	남편	84	77.1
	시부모	13	11.9
	부부	11	10.1
	아내	1	.9
생활비 지출	남편	76	69.7
	부부	18	16.5
	시부모	9	8.3
	아내	6	5.5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남

염미경(2010)은 결혼이주여성들 지속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며 수동적 존재로 제주사회의 도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서로 독립성을 추구하는 제주도 가족문화의 성격이 강해 일반적인 도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 욕구가 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조모임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한다. 가족들도 일을 하는 것에 거부하지 않고 출산을 통해 일을 쉬다가 출산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해서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 친정지원을 하는 경우나 자신의 용돈을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일을 통해 벌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친정지원을 남편의 도움으로 지원하는 가족도 있는데 이는 결혼 시 서로의 약속으로 이행되어지는 경우로서 일부 가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부부갈등으로 나타난다.

시집 가족들도 남편이 무능함을 알고 있고 젊은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많이 서운함을 드러낸다. 남편이 가장으로

책임감이 없고, 남편이 직장 나가거나 일을 하는 가정도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아 아내들은 돈을 받아쓰는 것이 너무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하여 주요 결정권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사례1)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는 내말 안 들어요. 남편한테도 소리 지르고 내가 연금 받는 것으로 이집 공과금 다 내주고 하지요, 아들네 돈 없어요, 며느리 자기나라 자주가고 돈이 많이 깨져요, 아들네는 며느리가 돈 관리해요. 나도 늙어서 아픈데도 많고 할아버지 계실 때 공직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그 연금으로 살아요. 우리 자식들 다 괜찮은데 이 자식만 이렇게 \*\*여성과 재혼해서 이려고 살지, 다른 자식은 잘 지내.

**사례2) 아내:** 남편은 돈 안줘요. 전에는 한 달에 5만원 줬는데, 아이들것 뭐 사고 친구 만나고 하면 돈 없어요. 돈이 없어 내가 직장가고 싶은데 못 가게해요. 나 돈 없어요. 내가 일해서 돈 받아서 아이 옷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싶어요.

위 사례들을 통해볼 때 재산관리는 남편이 하고 아내는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시부모가 마련한 집에서 살 때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시부모에게 있다.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에 봉급은 아내가 주도적으로 쓴다.

생활비지출은 대부분 남편이 하지만 남편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카드를 주거나 필요할 때 조금씩 주거나 아니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내들은 본인이 돈을 벌어도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족들이 궁금해 해서 갈등을 겪는다.

### 3) 음식 문화

<표 4-4>를 살펴보면 음식으로 인한 갈등으로, 한국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다 41.3%, 매일 한국음식만 먹는다 23.1%, 출신국 음식거절 21.2%, 한 가지 하면 여러 가지 음식 원함 14.4%로 나타났다

한국요리를 할 때 힘든 점으로 한국음식의 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49.5%, 요리법이 복잡하다 26.2%, 재료이름을 잘 모른다 15.5%, 기타 7.3%(제사와 명절음식)로 나타났다. 출신국 음식을 먹는 횟수는 한 달에 1번 29.1%, 1주일에 1번 16.4%, 3일에 1번 10.9%, 기타 34.5%로 조사되었다. 출신국 음식을 먹는 장소는 집 56.0%, 친구 집 32.1%, 기타 7.3%, 식당 4.6% 로 나타났다.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33.3% 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교육지도사 29.7%, TV 15.3%, 한국요리책 8.5%, 인터넷 7.2%, 문화센터 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음식 문화

음식 문화		빈도	%	
남편과의 음식 갈등	한국음식 요리시 맛이 없음	43	41.3	
	한국 음식만 먹음	24	23.1	
	출신국 음식 거절	22	21.2	
	여러 가지 반찬 원함	15	14.4	
출신국 음식	먹는 횟수	기타	38	34.5
		1달에1번	32	29.1
		1주일에 1번	18	16.4
		3일에1번	12	10.9
		매일	10	9.1
	먹는 장소	집	61	56.0
		친구 집	35	32.1
		식당	5	4.6
기타		8	7.3	
한국 요리 시 어려운 점	요리법이 복잡하다	27	26.2	
	간 맞추기 어렵다	51	49.5	
	재료 이름을 잘 모른다.	16	15.5	
	기타(제사, 명절음식)	9	8.7	
한국음식 배운 곳(사람)	방문교육 지도사	33	29.7	
	문화센터	7	6.3	
	한국요리책	9	8.1	
	TV	17	15.3	
	인터넷	8	7.2	
	남편, 시어머니	37	33.3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음식으로 인해 결혼 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한국음식에 조금씩 적응해 가야한다.

음식문화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그 특성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아내:** 출신국에서는 음식을 한 가지만 해서 먹는데 한국은 반찬을 여러 개 하기를 위해 힘들다. 아니 김치찌개 끓였는데 김치를 왜 놓아요. 먹지도 않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내놓고, 계속 그러면 맛있어요.

**사례2) 남편:** 이혼하고 혼자 오래 살다보니 한국음식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죠. 혼자 산지가 10년인데요. 김치, 깍두기, 생선손질, 각종 된장국, 미역국, 생선찜, 고사리 말리기(봄에 고사리를 꺾어 말려서 육지로 부쳐 주기도 함)등 내가 다 해요. 아내에게 가르쳐요.

**사례3) 아내:** 출신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출신국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향 냄새가 나고 이상하다며 음식을 치우라 하고, 나가서 밥을 사먹거나 라면을 끓여 달라 할 땐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다.

어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기의 텃밭에 출신국 야채 씨를 뿌려서 출신국 여성들에게 팔아서 용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음식문화를 통하여 부부간, 고부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소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남편과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출신국 음식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의 혼자 먹는데 요즘은 자조 모임이 많고 출신국을 방문하고 재료들을 가져오면 서로 공유한다. 제주도에도 외국 음식재료 파는 곳이 있고, 육지에서 불러서 손쉽게 출신국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다. 먹는 장소는 집과 친구들 집에서 많이 먹는다.

제주도는 동남아권 나라의 야채 씨를 뿌리면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잘 자란다. 뜰이 있으면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배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부식거리를 얻을 수 있으며, 뜰에 자국의 야채를 쉽게 볼 수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4) 공공지원교육 프로그램

<표 4-5>를 살펴보면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 61.7%, 컴퓨터교실 12.1%, 한국요리교실 12.1%, 전통문화체험 8.4%, 직업교육 5.6% 나타났다. 요구 프로그램은 다중응답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교육 73.9%, 자녀교육 60.4%, 취업 창업교육 46.8%, 가족생활교육 42.3%, 한국문화 및 예절교육 22.5%, 기타 5.4% 조사되었다. 학습장소 및 사람은 방문교육지도사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8.4%, 주민자치센터 4.6%, 문화센터 3.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 교육 중 좋았던 교육은 한국어교육 41.7%, 가족생활교육 20.4%, 가족상담 및 지원 16.7%, 자녀교육 10.2%, 임신, 출산서비스 9%, 한국요리 6.5%, 기타 3.7%로 나타났다.

<표 4-5 > 공공지원교육 프로그램

공공지원 프로그램	빈도	%	
선호하는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66	61.7
	컴퓨터교육	13	12.1
	전통문화체험	9	8.4
	한국요리교육	13	12.1
	직업교육	6	5.7
요구 프로그램 다중응답	가족생활교육	47	42.3
	한국어교육	82	73.9
	취업, 창업교육	52	46.8
	자녀교육	67	60.4
	한국문화, 예절교육	25	22.5
	기타	6	5.4
학습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1	28.4
	방문교육지도사	61	56.0
	문화센터	4	3.7
	주민자치센터	5	4.6
	기타	8	7.3
공공지원교육 (방문교육,기관참여)중 즐거웠던 점	가족생활교육	22	20.4
	한국어교육	45	41.7
	자녀교육	11	10.2
	임신, 출산서비스	1	.9
	가족상담, 지원	18	16.7
	한국요리	7	6.5
	기타	4	3.7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사례1) 언제나 컴퓨터를 켜놓고 출신국 친구하고 채팅하고 출신국의 방송을 보고 출신국의 방송에 참여하여 노래자랑 대회에 매년 참가하는데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출신국 노래를 불러서 시끄럽고 동네 주민한테 미안하다. 아내가 아파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한국말도 늘고 좋겠는데 아내는 한국 사람과의 만남은 신경도 안 쓰고 시간나면 컴퓨터 켜놓고 아이들이 잘 시간에도 컴퓨터만해서 자주 싸우고

내가 자판기도 몇 번 버렸다.

**사례2)** 내가 한 달에 120만원 받아서 생활비 써요. 동서는 아이들만 키우고 나도 아이들만 키우고 싶어요. 처음 결혼해서는 시아버지가 내가 시장가서 뭐 사오면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바구니를 다 뒤져요. 이번에 회사 주인 바뀌고 몸도 안 좋아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눈치 줘서 속상해요, 어디 어디 사람 구한다 하면서 왜 나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한국어 공부도 더하고 싶어요.

사례를 통해볼 때 다문화 재혼가족의 자조모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전문 부부상담가나 다문화가족상담사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재혼가족의 근본 문제들은 일반 재혼가족과 상통하는 것 위애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이 비교적 낮고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 및 성숙,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엄마가 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재혼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의사소통, 전처자녀양육, 문화차이, 생활방식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자녀 양육

<표4-6>은 다문화 재혼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용 경험이 없다 72.8%, 있다 27.2% 나타났다. 도움정도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 55.6%, 조금 도움이 되었다 44.4%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서 걱정되는 부분으로 언어발달 지연 31.1%, 건강문제 28.2%, 학습부진 23.3%, 친구들한테 왕따 11.7%, 자조집단 14.4%, 주변사람 13.5%, 친정엄마 4.8%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정보는 방문교육지도사 38.5%, 자녀의 한국어구사 걱정여부는 조금 걱정한다 44.7%, 걱정하지 않는다 36.5%, 많이 걱정한다 16.5% 로 조사되었다. 출산한 자녀와 전처자녀와의 관계는 보통이다 31.8%, 사이가 좋다 30.6%, 기타 29.4%, 사이가 안 좋다 8.2%로 조사되었다.

<표 4-6> 자녀 양육

구분		빈도	%	
영유아 건강검진	이용 경험	있다	28	27.2
		없다	75	72.8
	도움 정도	많이 도움 되었다	15	55.6
		조금 도움 되었다	12	44.4
양육에서 걱정 되는 부분		학습부진	24	23.3
		언어발달 지연	32	31.1
		건강문제	29	28.2
		친구들한테 왕따	12	11.7
		기타	6	5.8
자녀양육, 정보수집		가족생활(방문)지도사	40	38.5
		친정 엄마	5	4.8
		주변 사람	14	13.5
		자조 집단	15	14.4
		기타	30	28.8
한국어 구사		걱정하지 않는다.	31	36.5
		조금 걱정 한다	38	44.7
		많이 걱정 한다	14	16.5
		기타	2	2.4
출산 자녀와 전처 자녀와의 관계		사이가 좋다	26	30.6
		보통이다	27	31.8
		사이가 안 좋다	7	8.2
		기타	25	29.4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남

사례1) 아내: 우리엄마가 아침저녁으로 목욕을 해야 몸이 빨리 건강해진다고 말 해서 큰애 낳고 처음에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사례2) 아내:** \*\*가 말이 늦은 것도 임신 중 싸울 때 충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 임신 중 남편하고 모국을 방문하였다가 크게 싸우고 하혈을 하였는데 치료를 잘하여 유산이 안 되고 태어난 아이다. 그때 아이가 큰 충격을 받은 거 같아요.

**사례3) 아내:** 남편은 답답해요. 내가 결혼해서 5살 7살 목욕시키고 다 키웠어요. 지금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혼자 목욕 하는 거 잘 안 해요, 하라고 해야 해요. 남편은 아이들을 야단 안쳐요. 답답해요 남편은 집의일 시집에 가서 애기 다해요, 남편 어른 아니에요, 남편은 싸우면 나가라고 해요, 나 어디 갈 데 없어요. 난 국적도 없어요. 이제 아이들도 크고 “나 필요 없다 생각해요, 나 물건 이에요. 쓰다가 버려요” 그놈 나쁜 놈이에요.

**사례4) 남편:** 재혼가정의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아이 문제일 거우다. 우리 집도 거기 그 집도 애기 어명이 애기들한테 신경 안 써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우리 집도 뽀서 애기하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말이 안통해요, 정말 돌아 버리겠다고요. 애기 어명이 아니야 .

**사례5) 아내:** 나 계모 아니요. \*\*이 고집 부리면, 큰소리로 혼내요, 남편 너 계모, 나 \*\*이 \*\* 똑 같아요. \*\*애기, \*\*이 지금 커요. 뽀뽀 안 해요. 나 생각은 계모 아니요 \*\*이 사랑해 밥 많이 먹어, 빨리 잠자, 계모면 밥 먹든 안 먹든 잠자든 안자든 몰라요. 남편 바보, 남편 생각 없어요. \*\*이 밥 혼자 안 먹고 엄마 밥 먹여줘 \*\*이 밥 먹이는데 1시간 30분 걸려요. 난 처음결혼 남편 재혼 나이 많고 애기 있고 나 힘들어, 나 바보, 결혼해서 바로 애기 가졌어요.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애기 있어 이혼 도망 안가요. 많이 힘들어도 애기 안 버려요. 남편은 전처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갔었는데, 지금은 내가 낳은 아기가 아프면 빨리 병원 안가요, 나 화나요. 큰아이가 작은아이와 싸우면 큰아이 혼내면 왜 그러나면서 남편 소리쳐요(사례4와 5의 경우는 부부임).

위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가 출산 후 임신 출산 서비스가 지원된다.

출산 후 2월에 방바닥은 시커멓게 탈 정도로 난방을 하고 뜨거워서 앉기도 힘들고, 결혼 때 시어머니가 해준 솜이불을 깔고 지낸다. 친정엄마는 한국의 생활방식과 기후도 모르고 딸이 전화하면 출신국의 산후조리 방법을 지도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시어머니 간에 산후조리시에 서로의 산후조리 문화와 음식, 신생아 양육방법으로 갈등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은 한국의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것만큼 본인이 돌보지 못하므로 아이가 학습부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혹시 엄마가 외국인이라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정보가 늦고 남편에게 아버지 역할을 기대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 교육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혼란을 겪는다. 자녀의 언어습득시기에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없어 자녀의 한국어 표현 능력이 또래보다 늦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국과의 자녀 양육방법의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출신국에서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단순노동직에서 일하는 등 제한된 일을 하게 된다.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6) 결혼 동기 및 부부 적응

다음 <표 4-7>을 통해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동기 및 부부 적응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는 한국 사람이 좋아서 45.8%, 친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34.6%, 기타 11.2%, 한국에 취업 5.6%, 연애 2.8% 나타났다. 결혼 전 들었던 이야기와 결혼 후 실제생활이 달라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74.8%, 없다 25.2%로 나타났다. 갈등 내용으로는 약속 38.8%, 재산 31.8%, 기타 24.7%, 직업과 학력 2.4%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싸움의 이유를 보면 성격차이가 51.4%로 가장 높았고, 문화차이 41.4%, 돈 39.6%, 의사소통 26.1%, 기타 1.0% 로 나타났다. 부부싸움의 횟수는 1달에 1번 38.8%, 1주일에 1번 33.0%, 2주일에 1번 13.6%, 기타 13.6% 나타났다. 폭력경험은

언어폭력 61.2%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 신체폭력 16.5%, 없다 16.5%, 기타 4.9%로 나타났다.

<표 4-7> 결혼 동기 및 부부 적응

결혼 동기 및 부부 적응		빈도	%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한국과 한국 사람이 좋아서	49	45.8	
	친정에 경제적 지원	37	34.6	
	한국에 취업	6	5.6	
	연애	3	2.8	
	기타	12	11.2	
결혼 전 정보와의 차이	갈등 경험	있다	83	74.8
		없다	28	25.2
	갈등 내용	학력	2	2.4
		재산(집, 수입)	27	31.8
		직업	2	2.4
		약속	33	38.8
기타	19	24.7		
부부싸움	원인(다중응답)	문화 차이	46	41.4
		성격 차이	57	51.4
		자녀 양육	27	24.3
		돈 때문에	44	39.6
		의사 소통	29	26.1
		기타	6	5.4
	횟수	매일	1	1.0
		1주일에 1번	34	33.0
		2주일에 1번	14	13.6
		1달에 1번	40	38.8
		기타	14	13.6
	폭력 경험	없다	17	16.5
		언어폭력	63	61.2
		신체폭력	1	1.0
		언어, 신체 폭력	17	16.5
기타		5	4.9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한국 여성과 결혼을 못하고 외국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남성이 직업이 일정하지 않고 단순노동이거나 재혼을 하는 경우와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남성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집, 땅) 의존하는 비율도 높다. 연애결혼이 아닌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동거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율권이 없고 도구적 결혼의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제주도 여성들은 독립정신과 조냥 정신이 강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에서 20여년 살다가 제주로 결혼해 왔는데, 우리 제주문화를 수용해주시기를 요구하며, 도구적 개념의 결혼이 많으므로 더욱 그렇다. 다문화 재혼가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결혼 동기 등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결혼생활에 대해 남자 9명은 현재 재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느꼈고, 7명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10명이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6명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 남녀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1> 면담 다문화 재혼가족의 결혼적응도

(빈도)

다문화 재혼가족	불행	행복	계
남편	7(43.8%)	9(56.3%)	16
아내	6(37.5%)	10(62.5%)	16
합계	13(40.6%)	19(59.4%)	32

**사례1) 아내:** 같이 일하고 난 집에 오면 아이 돌보고 밥하고 집안일 하는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고 잘 싸워요. 결혼 초에는 전처자녀와 전처 병원비 문제로 많이 싸웠어요. 싸울 때 때리고 싸워서 경찰도 부르고 진단서도 끊고 여기 사진도(영당이에 명든) 보세요. 친정방문 했을 때 이웃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는 네가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얼굴에 다 나타났다 말 안 해도 알겠다. 친정 가기 전 며칠이라도 일하지 않고 얼굴이라도 가꾸서 친정에 가면 좋았을걸. 남편은 나를 갈 때 까지 일 시켜요. 내가 한국 와서 고생하는 거 친정엄마도 아시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례2) 아내:** 남편은 싸우면 욕하고 때려요. 임신 중에도 때렸다. 겨울이 되면 추운데 방문을 따길레 춥다고 했더니 때렸어요,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서 계단 손잡이 있는데 다리를 걸쳐놓고 때렸어요. 목걸이도 빼서 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사례3) 남편:** 결혼 5년차 아내는 너무 고집불통이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조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우리가 이혼한다면 아마도 성격차이로 이혼할 것이다. 아이양육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면 들어와서 아이를 맞이하고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다. 아이들 밥상을 차릴 때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멸치랑 김치 등 기본적인 반찬을 같이 차리면 좋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아내는 말을 안 듣는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하던 모든 일이 스톱된다. 한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육지가기로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고 갈 준비하던 중 사소한 것으로 다투어서 안 간적도 있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 힘들다.

“내 팔자가 사납다.”

**사례4) 시어머니:** 나 시집살이 많이 했수다. 하지만 우리며느리는 우리 집에 시집 잘 왔수다. 내가 아이 다 봐주지 며느리 걱정이 뭐 있수까 우리며느리 지 하고픈 말 다 함수다. 때로는 악다구니 쓰고 덤벼요. 며칠 전에는 사돈언니가 밤10시에 전화 와서는 우리 동생 맘에 안 들면 돌려보내라고 참 기가 막혀서 며느리는 며칠 전에 부엌칼 들고 자기 죽여라 하고 덤벼요. 식사시간이 되도 친구 만나면 오지를 않아요. 요즘은 밥도 따로 해먹어요. 아들도 안건너와요 .

위 사례들을 통해볼 때 한국남성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시댁 및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등으로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혼인 파탄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폭력을 당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긴급 구원 및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6개 언어지원 외국인 전용 핫라인 “1366” 센터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가정폭력 치료에 필요한 상담·의료·심리치료 서비스를 심도 있게 제공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이용 시에 언어 통역자를 동석시키고 진술서작성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떨어진 농촌지역은 출장,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7) 국적에 대한 욕구

다문화 재혼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에 대한 욕구는 <표 4-8>과 같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27.1%, 취득 안 한 가족 71%로 조사 되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39.5%, 준비 중이다 28.9%, 국적 취득이 중요하지 않다 21%, 자격은 되나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 10.5%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시 이중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79.8%, 원하지 않는 경우 20.2%로 조사 되었다.

<표 4-8> 한국 국적에 대한 욕구

한국 국적에 대한 욕구		빈도	%
취득 여부	취득	29	27.1
	미취득	76	71.0
	기타	2	1.9
취득하지 않은 이유	자격이 안 됨	30	39.5
	자격은 되나 남편이 도와주지 않음	8	10.5
	준비 중이다	22	28.9
	중요하지 않음	16	21.
2중 국적 취득계획	있다	75	79.8
	없다	19	20.2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과 그 특성들을 찾아 보고자한다.

**사례1) 아내:** 난 한국에온지 7년 되었다. 친구들은 국적을 취득하고 나보다 늦게 온 친구들도 국적 취득했는데 남편은 국적취득을 안 해준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요즘은 국적 취득해 달라고 말도 안한다.

**사례2) 남편:** 여자들 절대로 국적 해주면 안 돼 국적해주면 맘대로 돌아다니고 절대로 국적을 해주면 안 돼. 국적해주면 도망가!

**사례3) 이웃:** 옆에서 볼 때 안쓰러울 때가 많았지 애기도 잘 키우고, 한테 남편은 술 먹고 아내 때리고, 아내가 고생이 많았지. 아마 여자가 국적 취득하기만을 기다린 거 같아 국적 취득하고는 도망갔어.

위 사례들을 통해볼 때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존심이 상하다고 한다. 반면 전처에게 국적취득을 해주고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 2012년도에 이중국적이 시행되었다.

## 8) 생활비

다문화가족의 생활비에 대한 욕구는 <표 4-9>와 같다. 시부모님의 도움여부는 전혀 없는 경우가 40.2%, 손, 자녀돌보기 30.4%, 반찬 10.8% 생활비 9.8%, 가타 8.8% 순으로 조사되었다. 친정 부모에게 송금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끔 보낸다가 57.8%, 매달 보내는 경우 11.9%, 명절에만 보낸다 10.1%, 안 보낸다 11.0%, 기타 9.2%로 조사되었다. 송금지원자는 남편이 63.4%로 가장 많았고, 내가 일해서 28%, 시부모님,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생활수준은 출신 국 보다 높다가 76.4%, 비슷하다 12.75%, 낮다가 8.2%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 국에서의 생활보다는 제주도에서의 생활수준이 높다 76.4%, 비슷하다 12.7%, 낮다 8.2%, 기타 2.7% 로 조사되었다.

<표 4-9> 생활비

생활비		빈도	%	
시부모의 도움 여부	도움이 없음	41	40.2	
	생활비	10	9.8	
	손, 자녀돌보기	31	30.4	
	반찬	11	10.8	
	기타	9	8.8	
친정부모에게	송금정도	매월 보낸다.	13	11.9
		가끔 보낸다.	63	57.8
		명절에만 보낸다	11	10.1
		안 보낸다.	12	11.0
		기타	10	9.2
	송금지원자	남편	59	63.4
		시부모	6	6.5
		본인	26	28.0
기타		2	2.2	
현재 생활수준 인식	친정보다 높다	84	76.4	
	친정보다 낮다	9	8.2	
	비슷하다	14	12.7	
	기타	3	2.7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남편:** 나는 우리 집 \*\*엄마에게 경제권을 다 넘겼어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사먹을 돈만 있으면 되요. 아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어차피 아이엄마가 살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고 난 돈 관리 하는 거 머리아파요. 뭐 많은 돈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우리 4식구한 달 살면 되는 거지요. 난 아내가 필요한 것들은 미리 하도록 해줘요. 처갓집도 지어주고 이왕 해줄거 기분 좋게 해주고 예쁜 딸의 엄마인데 어차피 내가 나이 많으니까 먼저 죽으면 딸과 아내가, 이 살림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운전면허도 따서 운전하고 어머니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나는 운전 못하는데 생활의 질은 아내로 인해 이전보다 나아졌어요.

**사례2) 아내:** 남편은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을 안줘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올 때는 시어머니가 보고 토요일은 내가 일 안가고 집에서 아이보고 하는데 돈은 많이 받지 못한다. 시어머니가 아이 보니까 20만원 주고, 그러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나 남편한테 돈 달라 하기 싫어, 내가 번 돈으로 아이 옷 사고 병원가고 마트 가서 반찬사고 내가 필요한 것 사고 다해요 .

**사례3) 아내:** 시어머니가 옆에 사시지만 도움이 없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술 많이 먹고 3~4개월 봉급도 안 갖다 주고 월급으로 술 다 먹고 남편이 술 먹으면 시어머니가 각시가 남편이 술 먹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도 안하냐. 남편한테 잔소리 좀하지, 남편한테 뭐라 하면 시끄러워, 시끄러워 한다. 남편이 술 먹어서 월급도 3~4개월씩 안 가져오고 내가 일해서 아이들 유치원에 돈 내고 아이들 필요한 것 사고 반찬들 사고하면 80만원이 없어진다. 남편한테 월급 왜 없어 하면 다른 사람 줬어 술 먹었다. 몰라 없어, 시어머니는 농사도 짓지만 마늘 농사지어도 우리한테는 아주 작은 마늘을 준다. 가끔 음식을 주면 짜고 입에 맞지 않아 안 먹는다. 손자들을 봐주면 내가 직장을 제대로 다닐 텐데 시어머니가 얘기 봐주면 30만원 달라 하고 얘기 봐 준다하고 재워놓고 나가 일하다가 아기가 울면 온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기 보는 것 마음에 안 든다. 힘들어 죽겠다.

위 사례를 통해볼 때 다문화 재혼가족의 남편들이 집안의 가장으로 생활을 책임지는 부분이 약하다. 집안의 과수원과 집이 있으면 가족 부양에 있어서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다. 일도 불규칙적으로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아내들이 아르바이트 가서 번 돈으로 가정생활을 꾸리는 가정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아권 및 대부분의 나라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환율 차이도 있고 또 주변에서의 허위와 과장정보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하면 정기적으로 친정을 도울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부부간, 시집식구간의 갈등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기타, 연애로 이어진다. 결혼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사랑해서 라 기보다는 조건을 보고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결혼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시사한다.

## 9) 직업

다음 <표 4-10>는 다문화 재혼가족의 직업에 대한 욕구이다.

직업에 대한 통계표를 살펴보면 53.2%는 직장 또는 자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또는 자영업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48.1%, 보통이다 40.4%, 매우 만족한다 7.7%, 불만이다 3.8% 로 나타났다. 수입의 용도는 생활비로 쓴다가 55.4%, 친정에 보낸다 26.8% , 저금한다 8.9%, 용돈 5.4%, 기타 3.6%로 조사되었다.

<표 4-10> 직업

직업		빈도	퍼센트
취업 여부	네	52	46.8
	아니오	59	53.2
만족도	매우만족	4	7.7
	만족	25	48.1
	보통	21	40.4
	불만	2	3.8
수입 사용 방법	저금한다.	4	7.7
	생활비로 쓴다.	31	59.6
	친정에 보낸다.	14	26.9
	용돈	3	5.8
합 계		111	100.0

주: 결측치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사례1) 아내:** 난 한국이 좋아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고 딸을 하나 키운다. 남편은 아빠 나이와 같다. 난 방문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운전면허도 따고 차를 운전한다. 출신국 에서 하던 일을 제주도에서 하고 돈도 많이 받는다. 열심히 한국



어를 배웠고 지금은 5년이 지났지만 한국어를 잘해서, 내가 좋아 하고 내가 잘하는 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받고 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남편사업을 할 때 좀 보태줬다. 남편 사업도 잘되고 있다. 아이는 친정 엄마가 보고 출신국에도 몇 달 데려 갔다가 또 한국에 와서는 어린이집 보내고 지금은 2개 나라말을 잘한다. 딸이 출신 국에 가면 전화로 출신국 말로 통화한다. 딸은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지금 한국말도 잘한다.

**사례2) 아내:** 남편이 직장에 다닌다. 난 일 다니는 것이 좋다. 굴도 따고 과도 베고 동네 할망들이랑 일하러 다니는 것이 좋다. 돈을 받으면 시어머니 좀 드리고 (아이를 시어머니가 본다), 아이물건과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친정에도 좀 보내고, 얼마 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아서 친정에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알고 난리가 났다. 난 돈을 핸드폰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야단하시고 남편과도 크게 싸워 핸드폰도 중단되고 돈을 남편이 관리한다. 너무 속상하다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요즘은 많이 힘들다.

위 사례들을 통해볼 때 경제권 및 취업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에 준하여 취업이 가능하다.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이혼하거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거주 자격으로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들이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목표로 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오는 여성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꿈과 도전이 전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온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착과 통합을 위한 효과적 지원이 있어야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욕구 및 결혼적응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더 건강한 다문화 재혼가족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중에 소외된 다문화 재혼가족의 욕구와 결혼적응을 파악하여 다문화 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재혼가족 111명을 대상으로 욕구와 사례를 들어서 조사하였고,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재혼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받은 곳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더 많은 센터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제주 적응생활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다. 제주생활적응의 어려운 점으로는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크고, 이로 인해 때로는 오해가 발생하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둘째, 의사결정권으로 자녀교육, 재산관리, 생활비지출 모두 남편의 의사결정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시부모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재산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고 몇 년이 지나도 한국어에 대한 발달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결혼 초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소통이 조금 이루어지면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자조집단이든가 주변의 출신국 친구들과의 소통은 출신국어로 이루어진다. 남편도 아내와의 의사소통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가족의 주요결정권을 남편 혼자서나 혹은 시집 식구들하고 의논하여 결정하므로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원으로서의 아내나 모친의 부분적인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 음식 문화 적응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면 남편들이 맛이 없다고 가장 높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국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출신국 음식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자조 모임을 통해서 소통과 정보교환을 얻는 매개체 역할

을 한다.

넷째,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이다. 다문화가족 유입이 5~6년이 지나고 나니 한국생활에 적응되어 자동차운전 프로그램도 선호하고 있다.

다섯째, 자녀양육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장 많이 교육한다.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은 한국의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것만큼 본인이 돌보지 못하므로 아이들 학습부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용 경험이 없으므로 홍보가 더 요구되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교육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발달 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학교나 병원 등 사회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은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 교육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여섯째, 결혼 동기 및 부부 적응 욕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 사람이 좋아서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가 가장 높았고 결혼 전 들은 이야기와 다름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갈등이 큰 것은 다문화재혼가족들이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많이 하므로 서로 상대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상술로 허위정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내용으로는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산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싸움은 성격차이와 문화차이로 많이 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시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후 수치심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

일곱 번째, 한국국적에 대한 욕구를 살펴본 결과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낮았는데 그 이유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경우 이중국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변에서 입국년도가 비슷한 경우에 먼저 국적을 취득하고 본인은 취득 못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부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례를 통해 보면 20년 뒤에는 출신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았다.

여덟 번째, 생활비 욕구를 살펴본 결과 시부모님의 도움여부는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결혼하면 살림을 분가시키는 제주도 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초혼일 때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고 재혼가족을 이루면서는 도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거리 밖거리로 생활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가 들어옴으로 형편상 혼합 가족형태로 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분가가 이루어진다. 친정 부모에게 송금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끔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조모임을 통해 친구들의 친정 송금에 대해 듣고는 집에 와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문에 남편들은 자조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홉 번째, 직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직업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단순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자녀양육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올 때는 집에 있어야 하므로 전일제로 일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어서 생활비와 친정에 송금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문화 재혼가족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단기간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기관들이 함께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각 센터간의 중복서비스가 아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단체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돌봄의 방법으로 다가가기 보다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는 제주도 다문화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재혼가족임을 드러내지 않으려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 다문화 재혼가족의 일반화에는 제약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전역에 다문화 재혼가족에 대해 조사 하였으나 현황이 빠짐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측정오류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 있는 다문화 재혼가족 부부 전문상담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즉 다문화 재혼가족의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에 적응한 다문화재혼가족의 여성

결혼이민자를 문화 멘토와 코칭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나 남편들의 계속된 교육으로 많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교육도 초등교육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다문화적 시각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며 다문화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재혼가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혼부부의 모임, 재혼자녀들 모임, 재혼 시모들의 모임을 통한 정책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문화 재혼가족의 욕구 및 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계현(2011), 상담학개론, 학지사.
- 김계현(2011), 상담학개론, 학지사.
- 김선미, 김영순(2008), 다문화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다문화가족연구(2007), 평택 대학교 특성화사업단.
- 마크게이어존 (2010), 김영규 옮김, 당신은 세계시민인가? 21세기북스.
- 이여봉(2006), 탈근대의 가족들, 양서원.
- 전남표(2008), 국제결혼학개론, 문예미디어.
- 정민자, 강복정, 이성혜, 정혜은, 신혜영(2008),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원탁, 박순희, 서선희, 안효자, 송기범, 이형하(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 여성가족부.
- 최영아(2005), 또 하나의 우리, 재혼가족-재혼 가족에 대한 실태연구와 재혼준비교육프로그램모형개발,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최재석(199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최현미, 이해경, 최승희, 김연희, 신은주(2010), 다문화가족복지론, 양서원.
- 한상복(1983), 한국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삼철당.

### 국내 문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족적응에 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PP319-360.
- 권정혜, 채규만(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 김기홍(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미, 김영희(2009),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지.

김도희(2008),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연구, 한국가족학회지.

김민영(2007), 여성결혼이민자 적응지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라(2008), 국제결혼 이민 실태와 이민자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서강대학교 공정책대학원.

김승권(2010),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김연옥(1999), 재혼 가정 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연구, 한국 학술진흥재단.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김영주(2007), 한국의 다문화 현황과 사회적과제(계간사회복지). 2007 겨울호, 통권 175호,pp6~21.

김유경(2011),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행정안전부.

김율리아나(2010), 다문화가정의 전반적 현실과 제언, 선한 다문화가정센터.

김은숙(2009), 횡성군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이선(2006),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적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근, 김선빈, 박환일, 이승철, 손민중, 안신현(2012), 다문화정책: 동화에서 융화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김종세(2012),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가치 와 규범인식, 계명대학교.

김현수(2000), 부부의사소통과 결혼생활만족,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강의논집.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통합의 방향(2010), 학술세미나.

맹진학(2009), 한국인의 다문화 배제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36: 323-348.

문유경, 전기택(2011), 남녀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 박기관(2009), 다문화시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과제와 지원방안 지방자치, 통권 246호, 미래 한국재단, pp108~111, 보건복지포럼.
- 박재규(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적응관련 요인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법무부(2011),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 보건복지포럼(2011), 미래 한국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2010),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송복희(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가정생활교육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수진(2009),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유경, 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학회지 :14권 3호.
- 신지원(2011), 이민 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방향성연구,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 양진향, 박현주, 김송, 강은정, 변상희, 방지수(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 적응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1호.
- 엄명용(2010), 재미한인 교포의 이혼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염미경(2010), 제주 가족관계의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제주대학교.
- 오선주(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 우숙이(2010), 대구지역 국제여성들의 식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소영(2010), 제주시 여성이민자가족의 적응실태와 정책방향, 제주대학교.
- 윤형숙(2005), 지구화, 이주여성, 가족생산과 홍콩인의 정체성, 중국현대문학.
- 이상립(2011), 이주와 인구: 인구학적 관점의 설명, IOM이민정책 연구원.
- 이윤애(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 이현숙(2009),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유형, 간호행정학회지.
- 이혜경(2007), 결혼이주자가족정책 및 서비스분석모형 다문화가족센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 임성옥, 강성률(2011),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성격특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편3호 PP251~272.
- 임춘희(1996), 재혼가족의 계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소고, 인제대학교 아동가족복지연구소.
- 장은정(2007), 원격대학 성과 분석연구, 교육공학연구.
- 장혜경, 민가영(2002), 재혼가족의 적응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전춘애(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정기선(2005,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정민자, 강복정, 이성혜, 정혜은, 신혜영(2008),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다문화사회이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정승혜(1988), 부부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정현숙(2001), 영구동향과 과제, 언론과 정보 Vol. 8 No1.
- 조고은(2010), 재혼가족자녀의 갈등과 적응에 대한 성경적 상담,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애저(2010), 보건복지포럼 통권 PP19~35, 한국사회보건연구원.
- 조연재(2003),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경향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순(2012), 경기도민의 다문화 의식 실태와 정책방향, 경기개발연구원.
- 홍달아기(2010),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원광대학교.
- 황석규(2009, 2012), 제주다문화사회의 의미와 사회통합,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현은민(1995), 부부의 성격특성과 결혼 만족도, 안동대학논문집

## 외국 문헌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1), international Migration Law, no25.Glossary on Migration 2nd Edition, pp62~6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1), 윗책, PP.61~62.

BronB, Ingoldby, Suzanna D.Smith저, 강진경·권영인·신수진역(2009),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세계의 가족, 시그마프레스.

Eunsook Lee Zeilfelder(2007)-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편저,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양서원.

Freeston, Mark H.(1997). Reconsideration of the Locke-Wallace Marital Adjustment Test: Is it still relevant for the 1990s? Psychological reports, Vol.81 No.2, [SSCI, SCOPUS].

target=\_blank><http://www.kbs.co.kr/1tv/sisa/lifetalk/clinic/index.html>> 결혼생활 진단 셀프 테스트 1: 당신은 결혼 생활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보건복지가족부(2005, 2010, 2011), 다문화가족의 중장기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통계청 (2011), 세계파이낸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제14권2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제14권3호.

행정안전부(2009,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국가통계포털 (2007).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2011,12).

## 설문지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1) 귀하의 나이는?

- ① 25세 이하 ② 26~35세 ③ 36~45 세 ④ 46세 이상

1-1) 남편의 나이는?

- ① 40세 이하 ② 41~45세 ③ 46~50세 ④ 51~55세 ⑤ 56세 이상

2) 귀하의 출신국은?

- ① 중국 ② 캄보디아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네팔 ⑥ 기타

3) 귀하의 결혼 경로는?

- ① 친구나 친척 소개 ② 결혼중개 업체 ③ 종교단체 ④ 연애 ⑤ 기타

4) 결혼 후 출산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 1 명 ② 2명 ③ 3 명 이상 ④ 임신 중 ⑤ 없다

4-1)전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이상 ④ 없다

5) 남편이 재혼인 것을 결혼 전에 알았습니까?

- ① 알았다 ② 몰랐다

6)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가?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7)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 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② 주민자치센터 ③ 문화센터 ④ 자조 모임 ⑤ 기타

8)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 ① 문화의 차이 ② 의사소통 ③ 생활방식의 차이 ④ 외국인 차별 및 무시 ⑤ 기타

9) 남편과 살면서 문화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 ① 가사분담 ② 음식문화 ③ 자녀양육 ④ 느끼지 않는다. ⑤ 기타

10) 당신의 부부는 다음 문제를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1) 자녀교육은?

- ① 남편 ② 시부모님 ③ 부부 ④ 아내

-2) 재산관리는?

- ① 남편 ② 시부모님 ③ 부부 ④ 아내

-3) 생활비 지출은?

- ① 남편 ② 시부모님 ③ 부부 ④ 아내

11) 음식으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은 경우는 ?

- ① 한국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다.  
② 출신국 음식을 하면 남편이 거절(냄새, 맛)  
③ 한 음식만 주면 다른 반찬도 함께 차리기를 원한다.  
④ 매일 한국음식만 먹는다.  
⑤ 기타

12) 출신국가 음식을 먹는 횟수는?

- ① 매일 ② 3일에 1번 ③ 1주에 1번 ④ 한 달에 1번 ⑤ 기타

12-1) 출신 국 음식은 어디서 많이 먹습니까?

- ① 집 ② 친구 집 ③ 식당 ④ 기타

13) 한국음식 만드는 것을 어디서(누구)서 배웠습니까? 2개만 고르세요.

- ① 가족생활지도사 ② 시어머니, 남편 ③ 요리책 ④ 인터넷 ⑤ TV ⑥ 기타

13-1) 한국음식을 만들 때 가장 힘든 점은?

- ① 요리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② 음식에 간, 양념 맞추기  
③ 재료이름을 잘 모른다. ④ 기타

1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 ① 전통문화체험 ② 컴퓨터교실 ③ 한국어교육 ④ 한국요리 ⑤가족상담 ⑥ 기타

15) 자녀 출산 후 영 유아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5-1) 있는 분만 답하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많이 되었다 ② 조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16) 공공지원에 대한 욕구는 무엇입니까 ? 3개만 고르세요.

- ① 가족생활교육 ② 한국어교육 ③ 취업, 창업교육  
④ 자녀교육 ⑤ 한국(문화, 예절)교육 ⑥ 기타

17)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 ①다문화가족지원 센터 ②방문지도사 ③문화센터(학교) ④주민자치센터 ⑤기타

18) 다문화교육 (방문교육, 기관 참여) 중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 ① 가족생활교육 ② 컴퓨터교실 ③ 한국어교육 ④ 한국요리 ⑤가족상담 ⑥ 기타

19)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학습부진 ② 언어발달 지연 ③ 건강 문제
- ④ 친구들과한테 왕따 ⑤ 기타

20)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나요?

- ① 방문지도사 ② 문화센터 ③ 인터넷 ④ 자조 집단 ⑤ 기타

21) 자녀를 낳은 경우만 답하세요.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사이가 좋다 ② 보통이다 ③ 사이가 안 좋다 ④ 기타

21-1) 자녀를 낳은 경우만 답하세요. 전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사이가 좋다 ② 보통이다 ③ 사이가 안 좋다 ④ 기타

22)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는?.

- ① 한국, 한국 사람이 좋아서 ② 친정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 ③ 한국에서 취업 ④ 연애 ⑤ 기타

23) 결혼 전 남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과 달라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3-1)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① 학력 ② 재산 (집, 수입) ③ 직업 ④ 약속(친정에 경제적 지원) ⑤ 기타

24)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문화 차이 ② 성격차이 ③ 자녀양육 ④ 시댁갈등 ⑤ 돈 ⑥ 의사소통

24-1) 부부싸움의 횟수는?

- ① 매일 ② 1주일에1번 ③ 2주일에1번 ④ 한 달에1번 ⑤ 기타

24-2) 부부싸움 중에 폭력(언어, 신체) 을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없다 ② 언어폭력 ③ 신체폭력 ④ 언어·신체폭력 ⑤ 기타

25) 국적을 취득 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25-1) 아니요 하신분만 답하세요. 국적을 취득 하지 않는 이유는?

- ① 자격이 안 된다 ② 자격은 되나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  
③ 준비 중 이다. ④ 국적취득이 중요하지 않다  
⑤ 기타

26) 국적취득을 할 경우 2중국적을 취득 하시겠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27)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① 남편 ② 자녀 ③ 시부모님 ④ 친정식구 ⑤ 전처자녀

28) 시부모님이 부부에게 해주는 것에 모두 표시하세요.

- ① 도움이 없다 ② 생활비 ③ 집안일, 손, 자녀 돌보기 ④ 반찬 ⑤ 기타

29) 친정부모에게 돈(경제적)을 보냅니까?

- ① 매달 보낸다. ② 가끔 보낸다. ③ 명절에만 ④ 안 보낸다. ⑤ 기타

29-1) 보내는 경우에만 답하세요. 친정에 돈(경제적)은 누가 지원합니까?

- ① 남편 ② 시부모님 ③ 내가 일해서 ④ 기타

30) 현재 생활수준은 본국에서의 생활수준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① 높다 ② 낮다 ③ 비슷하다 ④ 기타

31) 현재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십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③ 직장, 자영업을 하다 쉬는 중 ④ 기타

31-1) 직장, 자영업을 하시는 분만 답하세요. 일에 만족 합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이다. ⑤ 매우 불만족이다.

31-2) 직장, 자영업에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 합니까?

- ① 저금한다. ② 생활비로 쓴다. ③ 친정에 보낸다. ④ 용돈 ⑤ 기타

32)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자국민상담사      ② 다문화 강사(어린이 집, 유치원, 학원, 학교 )  
③ 통역원 및 가이드      ④ 미용 및 피부 관리 ⑤ 자영업 ⑥ 기타

33) 가족, 친척, 친구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 반대한다

34) 주변에서 외국인이라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③ 조금 느낀다. ④ 기타

수고 하셨습니다.



< 결혼적응도 >

\* 당신은 결혼 생활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 결혼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행복감은?

0            2            7            15            20            25            35  
 극심한                      불행            보통            행복                      최고의 행복

\* 다음 각 사항에 대해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얼마나 의견이 일치 또는 어긋나는지 각 문항마다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십시오.

	항상 일치	대부분 일치	가끔 어긋남	종종 어긋남	대부분 어긋남	항상 어긋남
돈쓰는 문제						
여가, 휴가						
애정 표시						
친구, 주변 사람						
섹스						
가치관과 생활방식						
양가 부모형제/ 친인척 문제						

\* 다음 문항의 a~d 중 당신의 결혼 생활에 가장 적합한 답에 표시하십시오.

1. 의견이 서로 어긋날 때 대개
  - a. 남편이 진다
  - b. 아내가 진다
  - c. 서로 양보하여 타협안을 찾는다

2. 당신 부부는 취미나 여가를 함께 합니까?
  - a. 모두 같이 한다.
  - b. 일부만 같이 한다.
  - c. 거의 같이 하는 게 없다.
  - d. 아무것도 같이 하지 않는다.
  
3. 여가가 있을 때 당신은 대체로
  - a. 어딘가 가거나 뭔가를 하려 한다.
  - b. 집에 있고 싶어한다.
  
4. 당신의 배우자는 대체로
  - a. 어딘가 가거나 뭔가를 하려 한다.
  - b. 집에 있고 싶어한다.
  
5. 차라리 독신으로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 a.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 b.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 c. 별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 d.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6.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 a. 같은 배우자랑 결혼하겠다.
  - b.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 c.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
  
7. 배우자를 신뢰합니까?
  - a. 거의 믿어본 적이 없다.
  - b. 아주 드물게 믿는다.
  - c. 대부분 믿는다 .
  - d. 모든 것을 신뢰한다.

# The study of multicultural second marriage fami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im, Hu-Ja

Home Management Studies of the Graduate School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Prof. Kim, Hye-sook

##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second marriage life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ouple in Jeju province. A statistical analysis as well as WIN12.0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was used for the collected data. Percentage calculation was used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candidates and their marriage life adjustment.

The male candidates of this research are those who married before but divorced or separated by death and now married again with marriage based foreigners. The female candidates were those male candidates wife from overseas. Total numbers of candidates are 127, which are 111 female and 16 male. Among these candidates, 16 couples were directly interviewed in persons for a better data collection.

The summary of the outcome is as followed.

First, within Jeju province, multicultural families get help in sequence from Support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Self-help Meeting, Culture Center and lastly, Independent Help Center.

Secondly, it was appeared that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have most authorities including child's education, property management and living expenses.

Thirdly, from the statistic, many husbands do not like the food done by their wives. The wives learn cooking from their mother-in-laws which was 37%, home visiting educator 33%, television 17% and so on.

Fourthly, from the analytic data program of public support, the most favorite television program of the immigrant wives is Korean educational linguistic program.

Fifthly, home visiting educator's education takes great part in children's edu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Sixthly, the highest motive of marriage for the wives is because they like Koreans but they face difficulties when the reality is different from their expectation.

Seventhly, after interviewing the female candidates, it was appeared that only few have gotten the Korean citizenship, mainly because they are not qualified. Many of the female candidates wanted to obtain dual nationality.

Eighthly, highest percentage of multicultural couples in Jeju did not get any help from husbands' parents. It seemed it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Lastly, a desire to have a job in Korea for wives in multicultural family was high from the analysis but due to the communication problem, they choose to do simple labors or a part time job.

Multicultural marriage couples need help from local communities and organizations to live as a proper citizen of Jeju province. Each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a long term programs and the programs should be different with each other. Furthermor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come first than to see them as people to take care.